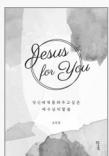


בֵּית ספר (책의 집)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

송민원 씀, 아드벤트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었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도 사랑해 줄래요?
내가 돌봐준 양들을 이제 당신이 먹이고 재워 줄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당신도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나요?”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일과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며, '어린이주일'로 예배합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정기 제직회:** 낮 예배 후, 본당
3. **5월 오후 활동 안내**
 - 기쁨주일(4일): 찬양예배
 - 배움주일(11일): "어떤 어른이 될 것인가?"(다큐멘터리 '어른 감장하')
 - 향촌직 공부 및 독서 모임(25일)
4. **어린이날 민속놀이 한마당:** 5일(월) 오전 9시 30분, 흥국체육관 및 거북선공원
5. 오늘은 '아삭줍기' 헌금 주일입니다.
6.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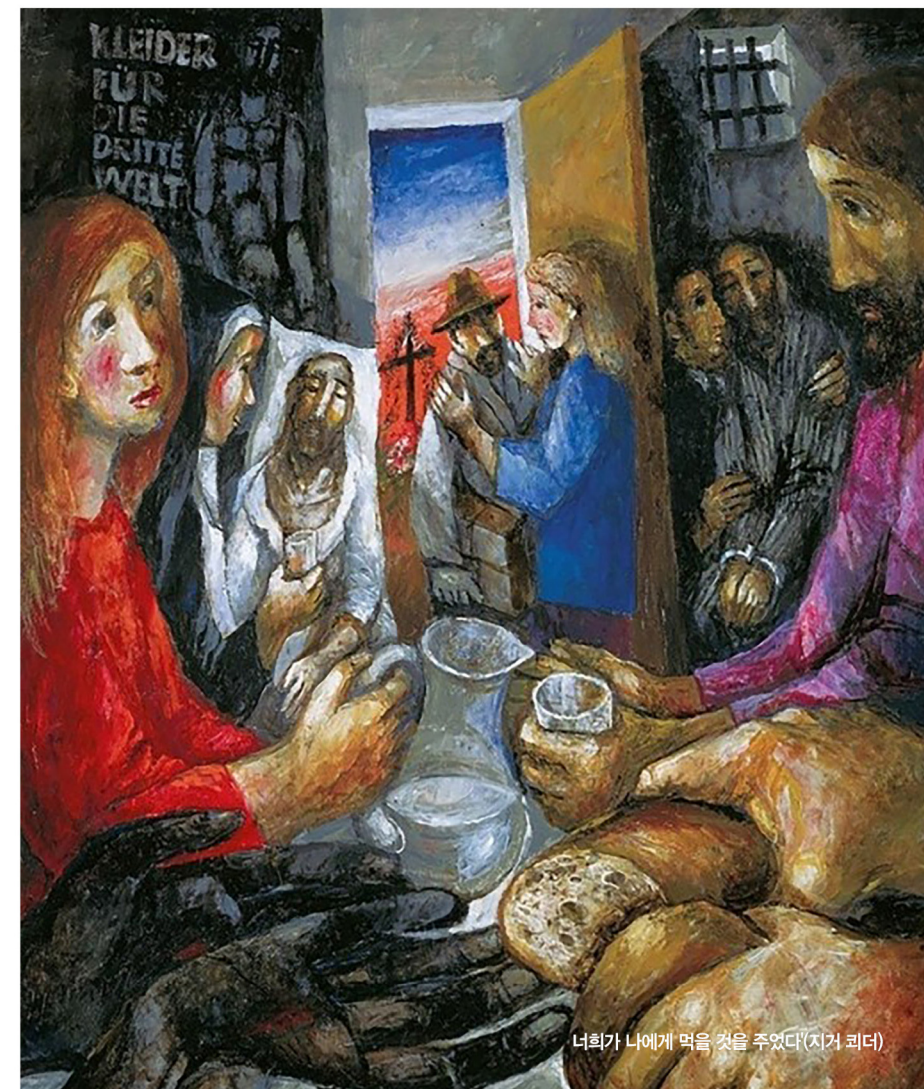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부모, 자녀, 남편, 아내, 스승을 향한 사랑과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봅시다.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선 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 브 라 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평화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교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거 죄더)

제51권 18호

2025년 5월 4일(부활절 세 번째 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주 일 예 배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135:1-3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11장(2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30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570장(2절 후, 간주)
기 도	이민의 어린이
유아세례와 어린이 축복	박이음
*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21:17(신약 184쪽)
찬 양	아금의 축복
말씀과 성례	당신은 나를 사랑하니요?
결단의 찬송과 기도	563장(3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2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양해룡 장로

- * 5월 안내위원 : 한맹자, 이영미, 정미자, 이경순
- * 5월 헌금위원 : 박종철
- * 5월 주방봉사 : 1, 7구역

생명의 말씀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요한복음 21:17/공동번역개정)

가 뽐 주 일 (찬양예배)

오후 1시 30분	인도 : 송 혁 목사
기 도	김인수 집사
오늘의 찬송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6월 기도 - 신중원 집사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이기도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김염희 집사
성 경 봉 독	시편 119:49-64(구약 892쪽)
말씀선포와 기도	시편을 깊이 묵상하다
축 도	이기도 목사
다음 주 기도 - 조정순 권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묵상 본문	8일(목)	시편 119:113-128
5일(월)	시편 119:65-80	9일(금)	시편 119:129-144
6일(화)	시편 119:81-96	10일(토)	시편 119:145-160
7일(수)	시편 119:97-112	11일(주일)	시편 119:161-176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질문 없는 믿음, 질문하는 신앙 (요한복음 20:19-31)

[성서일과표/사도행전 5:27-32, 시편 118:14-29, 요한계시록 1:4-8, 요한복음 20:19-31]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마지막 장은 뒷날 덧붙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기지는 20장 마지막 단락에서 이 책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이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세상 권력이나 재물이 아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곧 하나님이며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단순히 잘 먹고 잘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 혹은 해방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과학과 의학,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졌을까요? 가히 귀신 들린 세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생명은 하나님을 힘입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고 선한 능력 즉 살아있는 기운, 살아가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 충만한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였습니다. 선종은 ‘선생복종 정로(善生福終 正路)’의 줄임말입니다. 이 표현에 신앙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이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서는 유익이 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루하루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 충만한 삶인 것이지요.

다음 달 초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추기경들이 모여 교황을 선출하는 장면은 정치인의 모습과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온갖 모략과 임투가 어지러이 춤추는 현상이지요. 이번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유홍식 추기경은 어느 대륙의 추기경이 새 교황이 될 것 같으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주님께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답이지요. 프란치스코나 유홍식 추기경 같은 분들이 생명 충만한 삶의 증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새 교황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늘을 ‘도마주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질문하던 도마가 신앙고백으로 거듭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도마는 늘 이름 앞에 ‘의심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정말 그런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잠시 카라바조(Michelangelo Merisi da Caravaggio, 1571-1610)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를 보실까요?

사실 본문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카라바조가 그려 넣은 도마의 모습은 그의 상상의 산물입니다. 최주훈 목사(중앙루터교회)는 이 그림은 우리에게 ‘의심은 불경한 것인가?’를 묻고 있다면서, 카라바조가 그려 낸 그리스도는 ‘의심을 믿음으로 이끄는 분’이라고 읽어냅니다. 카라바조의 눈에 비친 16세기 말 교회의 모습은 본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대제사장처럼 복음이 아닌 조직과 전통에만 매달려 있었으니까요.

질문 없는 신앙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질문 없는 신앙은 자기의 옳음을 지키기 위해 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종교든 문화든 이데올로기든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근본주의가 폭력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가진 진리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에게 질문은 미지의 세계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의심과 질문은 더 깊은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하는 통로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향한 의심과 질문은 불신앙의 징표가 아니라 은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카라바조의 고백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가락을 당신의 상처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더 깊은 신앙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도마가 그랬듯 아이처럼 새롭게 태어나게 되겠지요. 진리를 향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이야말로 거듭남의 출발점이 된답니다.

손화철 교수(한동대학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최근에는 쇠퇴를 거듭하며 사회, 문화,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있다. 그렇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인의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다. 일차적으로는 신학적이고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잘못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유의 은사, 자유로운 물음,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사고의 능력을 지레 포기한 사람에게 있다. 질문하는 신앙이 아니라 질문 없는 믿음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살롬.”